



경북도 해외자문위원협 회장단 회의 '대면 재개' 경북도는 27일 안동그랜드호텔에서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 서정배 회장을 비롯한 대륙별 지역회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장단 회의는 2018년 필리핀에서 개최한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됐다. 이날 세계 193개국 200만명의 경북 연구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적 자원으로 양성하기 위한 'K-디아스포라 정체성 함양지원 사업'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의 염원을 담아 강력한 지지와 성공개최를 결의했다. /경북도 제공

대구 그린벨트 내 시민 힐링공간 만든다

팔공산 부동산 주변 생태탐방 데크와룡산에 숲체험 놀이터 시설 도입 생활기반-환경문화 18개 사업 추진

대구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국비 77억원, 4개 구·군 8억원을 매칭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8개소 사업

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기반사업', 시민을 위한 여가복지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등이 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7억원을 확

보해 구·군비와 매칭해 '생활기반사업' 51억원(국비 46, 구·군비 5), '생활문화사업' 34억원(국비 31, 구·군비 3), 총 8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주민지원사업 중 '생활기반사업'은 13개소로 사업 종류로는 금강동, 가창면 등의 지역에 농로 확장·정비 7개소, 평광동 등의 지역에 배수로 정비 2개소,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 팔현길 도로 확장 등 도로 정비 3개소이다.

'환경문화사업'은 5개소로 팔공산 부동산 주변 생태탐방 데크 등을 설치하는 녹색길 부동산 경관사업, 와룡산 숲 체험 놀이터 시설을 도입하는 여가복지 조성사업, 서당지 및 와룡산 누리길 조성사업, 금호강 조류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전망대 경관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가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이

잘 된 자연경관을 활용해 조성할 공간에서 산책로, 자전거도로, 숲 체험 등과 같은 여가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힐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구·군과 협조해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단체장 일정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28일 오후 2시 교육청 행복관에서 열리는 '2·28 민주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28일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28 민주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해 2·28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린다.

경북도, 국비 12조 시대 향해 힘찬 시동

지역경제 회복·신성장 동력 마련 국가투자예산 확보 총력전 다짐

경북도는 27일 본청 원용실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25년 주요 전략사업 국가투자예산 확보 계획과 추진 상황, 문제점과 대응 논리를 점검하고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중앙부처·국회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5016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글로벌 경기위축,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올해에도 12조 원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예산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사업별·실국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국비확보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내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문경~김천철도

(문경~상주~김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대구도시철도 1호선(하양~금호연장), ◇연구개발(R&D) 분야 △입자빔 기반 산학연 R&D 통합지원센터 구축, △스마트 과수 인공수분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 △엑소좀 기반 첨단바이오이노시티브 구축, △스마트 식물공장형 그린바이오로직스 기술개발사업, ◇경제·산업 분야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뿌리기술 디지털 전승 연계 XR디바이스 실증서비스, △차세대 농기계 디지털융합 제조서비스 기반 구축, △미래차첨단 ECU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중소벤처 제조창업 거점 조성, △심해 해양바이오 생체소재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농림·수산 분야 △생산지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정년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국립 동물방역교육연수원 설립,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 건립, △내수면 낚시복합타운 조성사업,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문화·환경 분야 △국립 세계유산원 건립, △용북

합 Art&Tech 클러스터 조성, △국립금체원 조성, △산림청년 미래학습관 조성 ◇복지·안전 등 기타분야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대표거점기관 조성사업, △경북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 설치, △경상북도 국립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안동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 등이다. 경북도는 이날 논의된 사업과 함께, 중앙부처별 중점과제와 투자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추가발굴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예산이 중단없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국비 확보 여건이 어느 한해 수월했던 적이 없다. 내년에도 정부에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 보여, 국비 확보에 역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한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국비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기관 및 국회 의원과의 유기적인 공조 전략을 펼쳐 핵심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 마을기업 13곳, 행안부 지정 심사 모두 선정

3년 연속 우수성과 달성 맞춤형 마을기업 역량강화 경북의 새로운 활력 기대

경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도 마을기업 지정심사에서 경북도가 추천한 13개(재지정 10, 고도화 3) 마을기업 모두 선정됐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으로 지역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지정한다. 이번 지정심사에서 경상북도는 선정률 100%로 시도중 최다 선정(경북13, 부산4, 세종1)의 성적을 얻었으며, 3년 연속 우수한 성과(2022년 선정률 100%, 2023년 선정률 96%)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마을기업 발굴과 지원시스템을 통한 전문적인 심사지원의 결과로 보인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는 그동안 특색있는 마을기업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관계기관들과 연계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심사를 준비하는 마을기업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했다. 2024년 선정된 마을기업 13개소(재지정 10, 고도화 3)는 총 3억6000만원(국비 1억 8000만원, 지방비 1억8000만원)을 받는다. '재지정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10개소(포항4, 문경1, 경산1, 의성3, 예천1)는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건설한 기반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개소당 3000만원)를,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3개소(영주1, 성주1, 예천1)는 운영 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개소당 2000만원)를 지원받는다. 한편 경북 마을기업은 2023년말 기준으로 148개소로 전국에서 4번째 규모로 지역과 더불어 성장·발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캄캄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일보 독자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즐기는 '열린 캠핑장'

구미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 구미 캠핑장 내에 '열린 캠핑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무장애 시설을 도입한다.

이번 조성 계획은 장애인 복지 증진과 함께 모든 이용객이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캠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 6월 공식 개장을 앞둔 열린 캠핑장은 새롭게 설치하는 무장애 카라반 2동에 대한 장애인 우선 예약제를 포함해 주차 공간 확장, 야간 조명 개선, 이동 동선 내 턱 낮춤 및 경사로 설치 등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MWC 전시관 운영...경북 기술 세계시장에 알렸다

경북도내 기업 10개사 참여 해외시장 진출 적극적 지원 로데슈바르츠와 업무협약도

경북도는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콩그레스 2024(이하 MWC 2024)에 경북도 전시관을 운영해 도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홍보하고 있다.

MWC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매년 2월 주최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산업 박람회로,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와 베를린 국제전자박람회(IFA)와 더불어 세계 3대 ICT 박람회로 꼽히는 행사다.

올해 MWC 2024는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를 주제로 모바일·통신 외에도 AI, 네트워크 인프라, 디지털 혁신 등 각종 ICT 분야에서 전 세계 2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혁신적인 신기술을 선보이며 차세대 디지털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역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무대에 알리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MWC 2024에 경북도 전시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경북소세 중소스타트업 10개사를 선발했다.

이번 MWC 2024 경북관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이 전시되는데,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피앤씨솔루션(AR 글라스), ㈜홀로랩(광학스크린소자) △뷰티·헬스케어 분야는 ㈜큐브

세븐틴(임시치아 제작 솔루션), ㈜원소프트다이(휴대용 체성분 분석기), ㈜케이씨테크놀로지(피부 측정기)가 참가해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소프트웨어플랫폼 분야에서는 ㈜클로버스튜디오(드론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답파인(XR 공간정보 플랫폼)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분야는 ㈜에스엘테크(드론 스테이션), ㈜브이스페이스 △안전시스템 분야에서는 ㈜씨에이(유해화학물질 누출감시 시스템)가 참가해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경북과 기업을 홍보하고 있는 참여기업들에게 이번 MWC는 실질적인 수출성과와 함께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한층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MWC 개막 첫날 26일 로데슈바르츠(Rohde&Schwarz) 전시관에서 경북도는 로데슈바르츠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구현을 위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기업들은 이번 MOU를 통해 5G-A(Advanced)·6G에 관한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교류 △테스트 서비스 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데슈바르츠는 무선통신 구축장비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이버 보안,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932년 독일 뮌헨에서 시작해 전 세계 70개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도 서울, 대전, 구미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구미시, 혁신기술 민간 이전·창업 지원에 힘써

강소연구개발특구 테크페어 개최 사업설명회·컨설팅 등 행사 진행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육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테크페어'가 27일 구미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김장호 시장, 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시의회 의장, 박희상 금오공대 총장, 이강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부장, 강소특구육성사업 수혜기업 54개 사 등이 참석해 강소특구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2년의 사업 기간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올해 3회차를 맞이한 강소특구 테크페어는 27일부터 이틀간 △강소특구 특화 분야 우수사례 발표 △사업설명회 △Trend GUMI(특강) △기업

지원 컨설팅 △IR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권오형 사업단장의 '23년도 경북 구미 강소특구 육성 사업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강소특구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소 기업으로써 지난해 매출 18억2300만 원을 달성한 '㈜대디푸드'와 '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돼 지난해 매출 22억5000만 원 및 신규고용을 창출한 '㈜디에이치티'의 사업과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023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2개 사와 연구소기업 5개 사에 현판을 수여했으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던 3개 사에 혁신기업상을 시상했다.

경북 구미 강소특구는 3년간의 사업 기간 중 연구소기업 설립 31건, 기술이전 및 출자 109건, 신규 기술창업 38건, 투자유치 연계 128.7억 원, 일자리 창출 902명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

고 있으며, 지역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창업 생태계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 순환의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학·연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며, 구미도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등 특화된 지역 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에 있는 주요 거점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R&D 특구를 지정·육성하는 제도이다. 금오공과대학교를 기술 핵심 기관으로 한 경북 구미 강소특구는 스마트 제조시스템을 특화 분야로 선정해 연구개발(R&D) 기반 신기술 창출, 사업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과학기술 기반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은진 기자

몽골 모노그룹 회장, 이철우 도지사 접견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협력 논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루브산 쿠렐바타르(LUVSAN KHURELBAATAR) 몽골 모노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경북형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관련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모노그룹 회장단을 비롯해 주한몽골대사관 서기관, 영덕군수, 대구한의대 총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경북도-영덕군-몽골

모노그룹-대구한의대학교'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몽골 모노그룹은 제약, 유통, 코스메틱, 건설 등 36개 계열사와 250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는 몽골의 10대 그룹 중 하나이다.

이 도지사와 몽골 모노그룹 회장은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국제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K-한방 에듀팜 단지 조성 등을 논의하며 이후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청년성장 프로젝트에 21억원 투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경북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21억여 원을 확보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고, 입사 초기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

업이다. 사업은 경북도와 8개 시·군(김천, 안동, 구미, 상주, 영천, 경산, 청도, 예천)이 공동으로 참여해 수행한다.

경북도는 미취업 청년 및 입사 초기 청년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시군 청년센터 활용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해당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참여

시·군과 긴밀히 협조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21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6억 원이 미취업 청년과 입사 초기 청년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경력(제)설계 △취업워밍업 △사회초년생 기본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다문화, 이주 정착, 귀농 귀촌, 경력 단절 등 지역별 청년 현황에 맞춘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상담 전문가와 1대1 상담, 집단상담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성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8(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com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예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상북도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항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도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아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경북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벨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4·환장·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용 펌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자가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군위 소보양파작목반 회원일동 교육발전기금 기탁

군위 소보양파작목반 회원들은 지난 22일 군위군청을 방문해 지역의 교육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교육발전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교목 회장은 기탁식에서 "군위군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군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힘써달라"

고 뜻을 밝혔다.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김진열 이사장은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기탁해주신 분의 소중한 마음을 이어받아 군위교육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박재성 기자

대구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준비 마치고 신학기 첫 출발

지역 70교 신입생 66.1% 참여 내달 5일부터 맞춤형 프로그램 방과후학교·저녁 돌봄 등 가능

대구교육청은 대구지역 늘봄학교 운영 준비를 마치고 오는 3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늘봄학교 70교 신입생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전화, 문자 등으로 늘봄학교 참여 희망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신입생 3976명 중 2629명(66.1%)의 학생들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학기 직전에 실시한 수요조사로 실제 수요에 근접한 것이나, 아직 학생들이 입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여서, 3월 입학식, 학부모설명회 등을 거치면 희망 수요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늘봄학교 참여를 추가로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운영 공간·프로그램 등을 더 확보해 서라도 늘봄학교에 모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오는 3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 1학년 학생들은 3월 첫 주부터 오후 1시~3시까지 재미있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3시 이후에는 하교하거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또는 틈새 돌봄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6시 이후에는 저녁 돌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1학기 70개 늘봄학교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민반의 준비를 마쳤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 공간·시설을 모두 확보했으며, 프로그램 편성과 강사배치도 완료했다. 그리고, 늘봄학교에 비품 구매 예산도 지원해 학교별로 책걸상, 공기청정기, 난방 장비, 안전용품 등 필요한 비품도 완비했다.

아울러, 대구교육청은 2월 마지막 주, 늘봄학교 운영 최종 점검에 나선다. 학교별 최종 준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마련된 늘봄교실 환경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입학 후 추가 수요에 대비한 준비 방안도 학교와 협의해 나간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교육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늘봄학교 신학기 출발을 위해 철저한 준비 해 온 만큼,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대구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군위군교육발전위 올해 사업예산 19억2900만원 최종 승인

올해 첫 정기총회 개최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지난 26일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사 및 읍면 지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1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6일 열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2023년도 교육발전위원회 사업 및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결산과 202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대해 최종 승인됐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작년 한 해 장학사업, 학교운영지원사업 등에 총 8억7000여 만원, 군위인재양성원 운영에 5억5000여 만원을 투자해,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 및 지방 주요 우수대학에 20여 명이 합격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올 한해는 다양한 신규시책 사업을 마련하는 등 교육에 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로 장학사업에 4개 분야 8700만원, △학교운영지원사업에 9개 분야 4억8500만원, △교육여건개선사업은 11개사업 9억2500만원 등을 편성해 전년 대비 10억5000여 만원이 증가된 총 19억2900만원의 사업예산이 승인됐다.

교육발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히 올해는 군위초등학교가 IB국제 바칼로레아)본부로부터 관심학교로 지정되고, 군위중학교도 IB기초학교로 지정되는 등 군위군이 IB프로그램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또 교육부 지정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군위교육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본격적

인 IB프로그램 도입과 교육발전특구를 위한 다양한 교육모델 개발을 지원할 재원으로 2억원의 예비비도 편성했다"고 전했다.

김진열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아이사랑 키움터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1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세대희망허브센터 건립, 통합건강지원센터 개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하드웨어적인 성과가 많았던 한 해였다"라며 "올 한해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의 소프트웨어를 채워 나가고 군위군 인구 25만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교육발전위원회 임원 및 지회원 여러분이 군위군 명품교육의 주춧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달성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실시

15억원 규모...내달 26일까지 접수

달성군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2024년 주민제안사업을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달간 공모한다.

주민제안사업 공모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제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달성군민이거나 달성군에 소재하는 기관·단체·기업·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공모의 예산 규모는 주민참여형 사업 9억 5000만원, 청소년·청년형 사업 1억 원, 읍면참여형 사업 4억5000만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다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이고, 청소년·청년형 사업은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청소년·청년을 위한 사업, 읍면참여형 사업은 읍면 주민을 위한 지역특화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제안 방법은 관련 유형의 아이디어를 담은 제안 신청서를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달성군청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과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공모된 사업은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위원회의 검토, 주민투표를 거쳐 2025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27만 군민의 생활 불편사항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새로운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발굴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안동·영주댐 녹조 해소 '수질관리 협의체' 발족

대구환경청 오늘 첫 회의도 가져

대구환경청은 28일 안동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경북도,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안동·영주댐 녹조 해소를 위한 '안동·영주댐 유역 수질관리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안동댐과 영주댐 유역은 구간 저수구역 내 무단경작, 퇴비 야적 및 과잉 살포 등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녹조 발생이 계속되어 왔고, 특히 지난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댐 상류의 오염물질이 대량 유입되면서 예년보다 심한 녹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구환경청에서는 올해부터 안동댐과 영주댐 상류에 대한 녹조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두 유역을 '녹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질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오염원 유입 차단과 정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흥원 청장은 "녹조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오염원 점검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댐 상류 녹조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 지하차도 1개소로 총 47개소이며, 도로관리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대구동부·남부순환도로(주)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2.22~3.8)하고, 대구시와 도로관리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3.11~4.3)할 계획이다.

해빙기 안전점검 주요 사항인 △도로 급경사지의 균열·침하·급경사지 하수 유출 및 낙석 발생여부 △낙석 방지책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옹벽 구조물의 파손·균열·배부름 현상 발생여부 △주변 배수시설의 적절한 기능유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 또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항 발견 시 즉시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해빙기 취약시설 47곳 대구시 안전점검 나서

대구시가 해빙기를 맞아 도로 급경사지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해빙기를 맞아 도로관리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동부·남부순환도로(주)와 함께 도로 급경사지 등 해빙기 취약시설 47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 취약시설은 도로 급경사지 29개소, 옹벽 14개소, 교량 3개

참여자·유족 등 1000명 참석 예정 동성로 전시부스, 기념공연 선포

제64회 2.28민주운동 기념식이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라는 주제로 28일 오전 10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64주년을 맞는 2.28민주운동 기념식은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국가보훈부가 주관해 국가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자유당 정권이 학생들의 야당 유세장 참석을 막기 위해 대구 시내 8개 공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린 일요 등교 금지에,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항거하며 일어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저항운동이다.

2.28민주운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기도 하다.

이날 기념식은 2.28민주운동기념탑 참배 후 기념공연, 기념식, 2.28찬가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념탑 참배에는 2.28민주운동 참여 주역과 2.28참가학교 학생 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지역 고등학생이 중심이 된 2.28정신을 후배 고등학생들이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어간다는 다짐과 메시지를 전한다.

기념식은 오전 10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각계 대표, 주요 인사를 포함한 학생, 2.28민주운동 참여자 및 유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0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날 기념공연으로 대구 동성로에 설치

된 2.28민주운동 '전시관(전시부스)'을 찾은 시민과 지역 학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을 주제로 하는 영상으로 전하고, 이어서 가수 이보람이 곡 '셀러브리티(celebrity)'를 부르며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2.28민주운동 기념 특별 사진전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1.2전시실에서 3월 3일까지 전시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28민주운동은 독재정권의 불의와 부정에 맞서 자유·민주·정의를 외친 자랑스러운 우리 대구의 역사이다"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2.28민주운동 주역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2.28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갑진년 안녕 기원 '황오 동제' 거행

경주시 황오동에서는 갑진년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지난 24일 황오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미리)와 황오동 발전협의회(회장 이종국) 주관으로 북정 제단에서 제38회 '황오 동제'를 거행

했다. 이번 황오 동제에는 최미리 황오동장을 비롯한 직원과 발전협의회 회원, 박승직·배진석 도의원, 이동함·정희택 시의원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여했다. 최미리 황오동장이 아현관, 이종국 발전협의회장이 초현관, 박성범 경주시청년연합회장이 중현관으로 참여했으며 전인찬 자연보호협회의장이 대축관, 전대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윤원주 청년회장이 집례관을 맡았다.

한국사 최초 여왕 '선덕여왕' 만나기 편해진다

156m 무장애 탐방로 내달 완공 "장애·고령인 누구나 접근 가능"

신라 27대 국왕이자 한국사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재위 632~647)릉으로 향하는 길이 편해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지난달 착공한 '선덕여왕릉 탐방로 무장애(無障礙) 관광환경 개선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선덕여왕릉 일대를 관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탐방로의 계단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장애인들과 고령자들이 쉽게 걸을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드는 게 골자다.

개선 사업 대상지는 계단으로 조성된 탐방로 156m 구간이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은 2억원으로 도비 6000만원과 시비 1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되면서 본격화됐다.

이번 탐방로 개선 사업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무장애 관광환경 개선사업으로 장애인·고령인 누구나 접근가능한 관광명소로 선덕여왕릉이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주시는 선덕여왕릉 외 다른 사적지도 무장애 개선사업을 추진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덕여왕릉(善德女王陵)은 경주 보문동에 있는 높이 6.8m, 지름 23.6m의 동글게 흙을 쌓은 원형 봉토무덤으로, 밑둘레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2~3단의 돌레돌을 쌓은 신라 왕실의 무덤이다.

선덕여왕은 아들이 없던 진평왕(재위 579~632)의 딸로 첨성대와 분황사, 황룡사 9층탑 등을 세웠으며, 김유신, 김춘추와 더불어 삼국통일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선덕여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69년 8월 27일 선덕여왕릉을 대한민국 사적 제182호로 지정한 바 있다.



김성학 부시장,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현장 점검

"시민의 생명·건강 최우선" 市, 의료 공백 최소화 당부



김성학 경주부시장이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현황 파악과 대책 논의를 위해 지역 주요병원을 26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주요 병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

고 조속한 비상진료체계가동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부시장은 지역 주요 병원장을 만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의료 공백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환자 불편사항이 최소화되고,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병원의 협조와 노력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주요 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응급진료 상황 등을 점검한 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수도권 대형병원의 진료 축소로 인해 지역병원으로 회귀하는 환자를 대비해 진료와 수술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3일부터 기존 운영하던 비상진료대책본부(본부장 부시장)를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장) 체제로 격상하고 지역 내 병원 운영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등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주시, 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적극 지원키로

경주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맞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및 상담센터를

비롯해 외국인근로자 쉼터, 고려인통합지원센터, 외국인 도움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누구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동천)에서 고충상담, 통·번역, 고용허가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경주 안강제일초·월성초, 전선지중화 사업 본격 추진

제일초 440m 구간 전주 24기 월성초 250m 구간 11기 철거

경주 안강제일초와 월성초 학교 주변 거미줄 전선이 사라진다.

경주시와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부는 지난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지중화 공사비와 도로 복구 공사비를 부담하고 각종 인허가 등을 지원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선 지중화 및 도로복구 공사 시행과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총 60억1500만원의 사업비(국 20%, 도 33%, 한전·통신 47%)가 투입된다.

안강제일초등학교 통학로는 42억 원을 들여 안강제일교회에서 제일안과 구간까지 총 440m 구간에 있는 전주 24기를 철거하고 지중화한다.

월성초등학교는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파리바게뜨에서 청기와 구간까지 총 250m 구간에 있는 전주 11기를 철거하고 지

중화한다. 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공사를 착공해 2026년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통학로 주변의 도시미관을 확보하고 보행자 교통 장애 개선, 통학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도로굴착에 따른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 시기 조정 등 보행자 중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들도 그린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유산 집적도시 전통문화 세계 이목 집중

APEC 정상회의와 경주 개최 의미 지방시대 균형발전 실현 최적 모델

오는 2025년 1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협의체 중 하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언제 될 유망성의

사회경제적 유발 효과는 상상 이상일 전망이다.

이에 경주시는 세계문화유산이 집적된 도시에서 최초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현재 한류열풍에 더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이목의 집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물론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의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한 단계 올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이 아닌 소규모 지방도시에서

의 개최는 APEC이 지향하는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과 정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가치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정상회의 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의미하는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12개국 간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1993년부터는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명실상부한 역대 최고급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했다.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윤경희 청송
군수는 28일 오후
1시 청송문화예
술회관 대공연장
에서 열리는 '청송
사과 생산자 역량강화교육'에 참석
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청도군, 맞춤형 복지서비스

청도군은 오는 3월까지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
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군은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복지 욕구를 파악, 어르신 일자리
를 제공하고 맞춤형 보건복지서비
스를 연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을 향상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
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관내 고물상을 직접 방문
하거나 읍·면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와 이장, 주민 제보 등을 통해 폐지
줍는 어르신의 현황을 파악한다.

군은 개별상담을 통해 건강 상
태, 주거 형태, 어르신 일자리사업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해 맞춤형 복
지서비스 및 어르신 일자리로 연
계할 방침이다. 조여은 기자



청송 지질공원 해설사들
신성계곡서 플로깅 행사

청송군은 지난 26일 신성계곡
녹색길 지질탐방로 일원에서 플로
깅(Plogging, 걸으며 쓰레기 줍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우리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청송을 찾는 관광객
과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송
지질공원해설사들이 직접 기획
한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윤병문 기자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정기회의 개최

김문섭 위원장 선출...40명 구성 지역 현안사업 자문 역할 수행

청도군이 지난 23일 정책자문위원 40명
을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를 향한 혁신·소통·공감'을 목표로 하는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이를 위해 일반복지와 평생교육, 문화·예술·관
광, 농업, 경제, 도시·환경 분야별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2년 동안
군정 주요 정책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조언, 건
의,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정기회의에서는 대구한외대 김문섭 교학부총
장이 위원장으로는 선출됐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청도군의 3대 군정 비전
인 △평생학습 행복 도시 △문화예술관광의 허
브 도시 △농업대전환의 추진계획과 청도군 보
건소이전신축의 9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실
명, 그리고 청도군 비전 2040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지역 균형발
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
토의하고 자문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군의 미래를 계획

하고 준비하는 중대한 시기에 청도군 정책자
문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4차산업 시대정신
에 맞추어 개인의 역량들을 집단지성으로 결
집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 대안이
나 실천 과제 등 공동체적 결과물은 군정에 적
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니 군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을 과감하게 제
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영양군, 명사 초청 '영양 별빛 아카데미' 개최

내달 5일 소통전문가 유인경 강연

영양군은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유인경 작가를
초청해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영양 별빛 아카데
미'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배움의 기회 확대를
위해 영양군이 마련한 3월 영양 별빛 아카데미 강
연에는 소통전문가 유인경(前 경향신문 선임기자)
작가를 초청해 '행복과 성공의 열쇠, 관계를 말하
다'라는 주제로, 우리 삶을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
는 인간관계를 맺는 법과, 그러한 관계를 위한 소
통하는 방법에 대하여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
질 예정이다.

유인경 작가는 기자로 활동할 당시, 경향신문
부국장, 주간경향 편집장을 역임했고, 저서로는
'퇴근길 다시 태도를 생각하다', '내일도 출근하
는 딸에게' 등이 있으며, 현재는 MBC TV 생방송
오늘아침, MBN 프로그램 동치미를 비롯한 다양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
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진정한
소통을 배우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
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양 별빛 아카데미는 무료 강연이며,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자치행
정과(054-680-6312)로 문의하면 된다. 권윤동 기자

청송군 SNS 홍보단 '온통청송' 위촉식 열려

청송군은 27일 오후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2024 청송군 SNS 홍보단 「온통청송」(이하 흥
보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식은 흥보단
활동 안내 및 SNS 콘텐츠 제작 교육, 위촉장 수여
식, 단체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작년 700여명이 공모한 온라인 이름짓기 이벤
트로 선정된 '온통청송'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한 흥보단은 총 15명이며 블로그 분야 10명,
유튜브 분야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다.
흥보단은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문화, 관광자원,
축제, 먹거리를 비롯한 각종 생활정보, 민원정보
등을 보다 신속하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을 확
대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
중한 자원들을 취재하여 생동감 넘치는 게시글로
청송군을 홍보하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열정적으로 임해주실 '온통청
송'분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청송백자, 서울서 특별전시 연다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가



(재)청송문화관광재단은 청송군 대표 전통문화
유산 중 하나인 청송백자가 오는 28일부터 3월 3
일까지 국내 대표적인 프리미엄 리빙 라이프스타
일전시회인 2024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참가한
다고 밝혔다.

"자연을 닮은 자연이 빛은 그릇 청송백자" 주제
로 진행되는 이번 청송백자 특별전시에는 유명
브랜드 공예품, 드라마 협찬 상품, 신제품, 등 1
년간 준비한 달 향아리의 총 4,200점 정도를 전시
하며, 행사기간동안 청송백자 전시홍보부스 운영
과 함께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
시를 통하여 수도권역의 고객층 확대 및 산소카페

청송군'의 문화관광명소, 청송백자 도예촌, 등 을
함께 홍보하여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할 예정
이다.

현대인들의 음식문화 트렌트를 반영한 신제품
을 주력으로 버건디 색상의 벽 선반과 모던한 데
이부를 활용한 소품과 대형 그릇장으로 구성된
판매 공간으로 나누어 전시하며 소품 정면에 특
별히 제작된 대형 달 향아리를 전시하여 관객들
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청송문화관광재단(윤경희 이사장)은 현재
"청송백자는 오백년 전통의 가치에 현대의 실용미
를 더한 디자인으로 청송군 핵심 콘텐츠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매년 매출 기록을 달성하고 있으
며 앞으로 우왕산관광단지를 핵심거점으로 지속
적인 고급화 전략 추진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청송백자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 더 높여 나가겠
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백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청송군에서만 산출되는 '청송도석'이란
백색의 돌을 빻아 백자를 빚는 독특한 전통방식
을 계승하고 있다. 이 도석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성된 것으로 1억 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에 순응하면서 탄생한 자연이 주는 보물이며 청
송백자를 '자연이 빚은 그릇'이라 부르는 이유이
기도 하다. 윤병문 기자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28일 오후 2시 영천문화원에서 개최되는 문화원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한다.



안계중·고 총동창회장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의성군은 지난 24일 권혁창(안계중학교20회) 안계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개인최고액인 500만원을 의성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권혁창 총동창회장은 평소 고향 안계면과 모교 사랑이 남달랐으며, 모교의 총동창회장을 맡으면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안계중·고 총동창회 이취임식과 함께 진행된 이번 기탁식에서 권 회장은 "총동창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라며 "이들 계기로 많은 동창, 동문 여러분들의 고향사랑 기부 동참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권 회장은 이번 총회를 마지막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해 준 권혁창 동창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보내주시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의 복리증진 및 의성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봉화 명호면 하천변 환경 정화활동 실시

봉화군 명호면은 지난 26일 이나리 출렁다리 하천변 일원에서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및 수달래 군락지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는 명호면 자율방재단 20여 명이 정화 활동에 발벗고 나섰다. 자율방재단 회원들은 하천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잡목 등을 제거해 관내 주민들과 명호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뜻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히 수달래 주변의 생육을 방해하는 우거진 덩굴과 잡목들을 깨끗이 제거해 본래의 모습으로 수달래가 드러나게 했다.

김해수 명호면장은 "환경정화 활동으로 수달래 생육 환경이 개선되어 올해 봄에는 하천변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수달래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명호면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민 자율방재단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영천 금호 역사권 개발... 도시 광역화 플랜 구상

市, 타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역경제 성장의 극대화 모색

영천시는 27일 최기문 영천시장을 필두로 공무원 20여 명이 역사권 개발 성공 사례로 꼽히는 양산시와 경산시 현장을 찾아 영천시 금호역세권 개발 사업에 접목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5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역장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도시

철도 개통 시 파급될 금호읍 경제 성장 극대화 방안 모색을 위해 이뤄졌다.

영천시는 오전에 양산시 사송-물금신도시를 방문한 나동연 양산시장을 만나고, 오후에는 경산시 임당 역사권지구-대입공공택지를 견학하며 조현 일 경산시장 및 담당 공무원을 만나 사업설명과 성공 경험을 청취했다.

양산시는 2008년 부산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라 LH에서 양산 물금신도시를 개발해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를 조성하고 거점 국립대학병원 부산대학교 분원을 유치했다. 부산도시철도 1호

선 구간은 사송신도시 공공주택지구가 개발이 완료돼 분양 중이다.

경산시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영남대 연장 관련, 경북개발공사에서 임당역세권 지구 주거 용지를 조성했고 대입공공주택지구는 LH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 중이다.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하양 구간은 영천시 금호읍까지 연장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최종 종착지인 Y2(가칭)역이 금호읍에 설치된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이 2030년에 개통되면 대구-경산-영천 철도 광

역 교통권이 구축되고 공동생활권이 형성돼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각종 개발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 두 지자체의 현장을 보고 성공 사례를 들으며 우리시는 어떤 효과적인 방안을 도입할지 고민을 거듭해, 금호역세권의 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광역 교통망 형성뿐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장기 비전과 플랜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최은하 기자



영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발대

초등학교 12곳 등하굣길 배치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영주시는 27일 시청 강당에서 '2024년도 영주시 교통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초등학교 개학 시점에 맞춰 지킴이 활동을 재개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킴이들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수여해 지킴이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도로교통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앞서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킴이를 모집해 총

53명이 지원, 3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지킴이는 자원봉사활동 경력자와 교통안전지도사 및 아동안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이들은 올해 지역 12개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배치돼 △횡단보도 함께 건너기 △교통신호 및 규정속도 준수하기 △비보호 우회전 차량으로부터 아동 보호 △학교 인근 우범지역 순찰 등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보행과 확보와 교통안전 지도에 힘쓸 예정이다.

이날 교육은 고령자 교통사고 유형 및 예방법, 어린이 행동 특성과 교통지도 방법 등

실제 근무 시 활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앞으로도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경찰서, 모범안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각종 캠페인 개최 등 등하굣길 교통 봉사를 통해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전성기 기자

영천시 기업지원 알림톡 개설...

영천시는 기업인들에게 기업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영천시 기업지원 알림톡'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한다.

'영천시 기업지원 알림톡'은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정보제공 서비스로 기존의 공문이나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한 일방적인 홍보방식을 보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상담 검색창에서 '영천시 기업지원 알림톡'을 검색하고 채널을 추가하면, 시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업지원 사업의 정보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다.

최은하 기자

영주시, 상반기 전기차 180대 보급

6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영주시는 '2050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7일부터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하반기 2회에 나눠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승용차 80대, 화물차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29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원,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입 시 국비 30%를 추가 지원

한다. 보급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다. 다만,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마감된다. 신청 전 영주시 환경보호과에 잔여 물량을 확인하고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후 판매지점 및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등록해야 한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신속한 지원 시책 전달 가능



의성군은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24년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의성지역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실시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중소기업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의성군에서 검토 후 심의회를 거쳐 상반기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물류비 등으로 산정하여 기업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데, 특히 올해는 대표자와 근로자의 관내 주민등록률과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금액도 지원하여 총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문의(054-830-6617)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 GAP교육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확대

의성군은 오는 28일 복숭아발전연구회, 3월 6일 옥산면GAP연합회를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을 진행한다.

GAP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재배과정, 수확 및 저장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감소시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교육은 생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GAP 인증 농가는 2년에 1회, 2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 농가도 해당 교육을 이수하

여야 한다. 지난 3년간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23회의 교육을 진행하여 총 1,200명이 수료하였다.

GAP 인증 농가는 2006년 시행 이래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의성군은 전체 농가의 약 19%가 GAP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성군은 GAP 인증 농가를 확대하여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 모집



의성군은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생활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의 경우 차량 등록 후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 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실적에 따라 연 1회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 차량은 의성군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로 전환경차자동차(하이브리드·수소 등)는 제외된다.

모집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2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https://car.point.or.kr) 누리집 회원가입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문자를 통해 자동차 전면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성 기자



포항시 고향사랑기부제 새로운 답례품 선보여

포항시는 지난 26일 '2024년 제 1회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새로운 포항시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답례품은 농축산물·가공식품으로는 △영일만소주 △막걸리 △약주 세트 △포항마들렌 △감자빵&고구마빵 △산마늘명이 스틱꿀 및 선물세트 △대추(별초) △부추환 및 부추즙 △고춧가루 및 다시팩이, 제조물품은 △연오랑세오녀 유리잔&코스터 세트 등이 선정돼 총 10개 공급업체 16개 품목이 선정됐다.

이번 추가 품목은 영일만 소주, 흥해라이프 막걸리&약주 세트 등 포항 전통주를 비롯해 포항 대표 농산물인 부추를 활용한 부추즙과 글루텐프리 감자빵&고구마빵 등 기부자들을 만족시킬 새로운 답례품이 선정됐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포항시 고향사랑기부제 등록 답례품 품목은 기존 27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됐으며,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은 오는 3월 중순부터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주문이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해 답례품으로 과메기와 견조정 등 다양한 상품이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올해도 답례품 다양화를 위해 추가 선정을 진행했다"며 "기부자들에게 만족스러운 답례품을 제공해 지속적으로 포항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 서부2동 지사보협 경로당 순회 이·미용 봉사

경산시 서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7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활동을 했다.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는 2022년부터 시작한 서부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협의체 위원인 서이정 원장(아이비헤어아트)이 어르신들에게 커트를 진행하고 다른 위원들은 어르신들의 인부를 묻는다. 짝수달 네 번째 화요일에 서부2동 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부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재신 위원장은 "이·미용 후 깔끔해진 모습으로 활짝 웃는 어르신들을 보니 기쁘다"며 "올해도 서부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이웃을 위해 꾸준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안근상 서부2동장은 "바쁜 와중에도 재능기부를 해주신 서부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신경윤 기자

이강덕, K-배터리 초격차 확보 '심없는 행보'

배터리사업협회와 협력방안 논의 인터배터리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 포항시 정책 발굴에도 지속적 노력

이강덕 포항시장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지보국 도시 포항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광복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27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방문해 박태성 상근부회장을 만나 이차전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시와 협회 간 협력 방안에 대

해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견인할 전지보국 도시 포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K-배터리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또한 미 대선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포항에서 시작하는 배터리아카데미 남부권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포항국제전시컨벤

션센터 준공에 맞춰 인터배터리 및 이차전지 국제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제안했다.

이 시장과 박태성 부회장은 이차전지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해 대내외 많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배터리 산업이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데는 배터리산업협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이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협회와 함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배터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연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배터리 특성화대학원을 포스텍에 유치해 이차전지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오는 3월 열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산업 박람회에 경북도와 함께 공동 홍보관을 설치해 지역 중소기업들을 홍보하는 한편 이차전지 전문가자문회의를 코엑스에서 개최해 이차전지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내달 포항사랑카드 7% 상시 할인판매

개인 구매해도 월 50만원, 카드 70만원

포항시는 내달 4일부터 카드·모바일형 포항사랑상품권(이하 포항사랑카드) 170억 원을 발행해 3월 상시 할인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용과 충전이 편리해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고 부정 유통도 방지할 수 있는 포항사랑카드 170억 원을 발행해 내달 4일부터 7% 할인 판매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10% 할인판매 시 월 40만 원이었던 포항사랑카드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카드 보유한도는 70만 원이다. 충전하기 전 카드 잔액을 모바일 앱(IM#)에서 미리 확인하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다.

포항사랑카드는 모바일 앱(IM#)에서 내달 4일

새벽 12시 15분부터, 104개소 판매대행점과 대구은행 ATM기(49개소)·셀프창구 등은 영업시간에 충전할 수 있다.

대구은행,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판매대행 금융기관은 시 포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류형 판매는 없다.

포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누리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은 소비자들 방문 증가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와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절감되는 혜택이 있다.

특히 등록된 가맹점주가 모바일에서 BC QR for shop 앱으로 신청한 QR키트를 설치한 후 사용자가 포항사랑카드 모바일 앱(IM#)에서 QR코드로 결제하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0.14% 인하는 혜택이 있다.

또한 등록된 가맹점이 포항사랑카드 모바일 앱

(IM#)에서 shop(샵) 개설을 신청하면, 매장 소개부터 SNS 채널 연동을 통한 홍보와 구인 광고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IM#)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시청 경제노동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강덕 시장은 "올해도 포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설 명절에 포항사랑상품권 420억 원을 10% 특별할인판매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지난 7년간 포항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이 2조 365억 원을 돌파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

성주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2024 사업 확정

성주군은 27일 성주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성주군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위원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농림축산식품심의회를 개최했다.

성주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는 총 34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심의회를 통해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39종, 예산액 426억6661만 원을 포함한 985억9416만 원의 사업비를 심의·확정했다.

또한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43종, 492억 6568만 원을 포함한 1071억2097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기로 심의·확정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내년도 예산신청액은 금년도 확정액보다 85억 원을 증액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 했으며 앞으로도 성주 농업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 2024 참한별 장수대학 개강식 개최

6개 강좌 220명 등록, 주 4회 운영 지역 어르신 배움과 만남의 장 마련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은 27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한 김성우 성주군

의장 및 군의원, 장수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참한별 장수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참한별 장수대학은 2014년 처음 시작되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일상생활 활력소 증진을 위해 연간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24년 참한별 장수대학은 실버요가, 트롯댄스, 노래교실, 탁구레슨, 파워건강체조, 뇌인지움치료 등 6개 정규강좌를 개설해 2월부터 12월까지 주 4회 운영되며, 올해는 220여명의 수강생이 입학하는 등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기가 어느 해보다 뜨겁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장수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한별 장수대학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연회비 50,000원)이 가능하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054-933-9445로 문의하면 된다.

경산시, 경북TP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협약

경산시는 27일 시장실에서 (재)경북테크노파크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빛나는 만화마을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산시와 (재)경북테크노파크는 적극 협력한다는 의지를 담아 △협약 기간 △협약 기관의 권리 및 의무 △사업수행 방법 △사업비 관리 및 경산 △보안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상호 교환했다.

경산시는 문화특화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18억 원을 들여 경산시 서상길 일원에 빛나는 만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4년도 주요 사업은 공동체 활동 지원 및 거버넌스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벽화작업 및 전시회 개최, 찾아가는 만화교실, 경산 만화축제, 웹툰으로 들려주는 야간 불빛콘서트 개최다. 신경윤 기자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의 전문 연구원들의 노하우와 경산시의 재정적 지원이 합쳐진다면 경산시가 만화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형 문화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경윤 기자

경산시, 3월부터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경산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관내 유아숲체험원 2개소(삼성현, 비호동산)에서 2024년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아숲지도사 등의 산림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업체를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운영을 위탁해 경산지역 유아들에게 더 전문적인 산림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교육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 △창의성·집중력·탐구 능력 등 학습 능력 향상 △환경 감수성 증진 △인지적(IQ)·정서적(EQ)·사회적(SQ) 자아 개념 형성 △신체적 면역력 향상 등 전인적 성장 발달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경산시 유아숲체험원은 격주로 월 2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정기형'과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으로 운영되며, 올해 정기형은 총 122개의 유아 교육기관이 신청해 추첨을 통해 111개 기관을 확정했다. 정기형에 확정되지 못하였거나 비정기적 참여를 원하는 경우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3월부터는 매달 15일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경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2개월분을 선착순으로 예약접수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정기형 확정기관은 체험형에 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체험형 신청이 적은 오후 시간대(딱수 주 금요일은 제외)만 횡수 제한 없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어 더 많은 유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경산시는 전 연령대의 시민이 숲에서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 및 산림복지 시설을 확충해 운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조복현 산림과장은 "아이들이 숲에서 더 다양한 산림교육을 경험하고,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유아숲체험원 관리 운영에 힘쓰겠다"며 "시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도시 경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경윤 기자



근대골목 쓰담투어 (플로킹)

코스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1~5코스

투어운영

- 정기투어 : 매주 수요일 15:00 / 매주 토요일 10:30
- 수시투어 : 7명 이상 신청 시, 시간·코스 자율 운영
- 투어인원 : 7명~13명 정도 1팀 운영

※ 1365자원보상포털(<https://www.1365.go.kr/vols/main.do>)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자원봉사등록 및 실적확인 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 대구중구청 골목투어 홈페이지 (<https://www.jung.daegu.kr/new/culture/pages/main/>)
- 전화신청 : 대구중구청 관광과(☎053-661-2625)



※ 플로킹(Ploking)이란 : 스웨덴어 'Ploka upp(줍다)'와 영어 'Walking(걷기)'를 합성한 신조어